

가까이 있는 위험 1 Corinthians 5:1-13

군사 작전 중에는 아군이 적의 공격 목표 범위 안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오인 사격을 피하기 위해 매우 신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위험 근접(Danger Close)”이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위험에 대해 병사들에게 경고할 때 사용됩니다.

고대 도시 고린도에서, 교회는 마치 적의 총알 세례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적은 세상 “밖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라는 영적 적이 교회 안에서부터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는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허용되는” 도시였습니다. 오늘날 말로 하자면,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은 고린도에 머무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가진 이 도시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으며, 상품, 철학,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지난가을, 우리는 기초라는 시리즈를 통해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고, 그 교회 설립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당시의 문화에 굴복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무시하며, 교회 내에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가족을 돌보고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을 놓쳐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 안의 대화라는 시리즈로 고린도전서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로서 누리는 기쁨과,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기 위해 서로를 향해 품은 진심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가족을 세우며 그 안에서 함께 스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5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왜곡된 분열과 죄와 맺은 위험한 관계를 다룹니다. 바울은 “위험이 가까이 있다”라고 선언하며, 죄와 그로 인한 파괴를 막기 위해 단호한 개입을 요구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죄는 몇 가지 형태로 드러납니다. 죄는 하나님의 성품이나 그분의 부르심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 말, 생각, 동기를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불법이라.” (요한일서 3:4)

고린도 교회는 불법적으로 행동했으며, 더 심각한 것은 그것이 예수 안에서의 자유라고 착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공동체 안의 죄를 진지하게 다루고, 예수님 안에서의 참된 자유로 돌아가, 서로를 관계 안에서 회복시키며, 교회 밖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가족 안으로 인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다루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을 구원하기 위해**
- **교회를 구원하기 위해**
-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첫 번째 요점 – 개인을 구원하라

첫 번째 요점인 “개인을 구원하는 것”은 고린도전서 처음 5절을 중심으로 다룹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계모와 동침하고 있었고, 교회는 이 죄가 그의 구원을 잃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 남자의 아버지가 이미 사망했을 수도 있지만, 로마법과 유대법 모두 계부모 간의 관계를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 즉 비기독교인들조차도 하지 않을 일을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 도시에서조차 교회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다면, 분명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에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허가증을 준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죄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남자의 죄 하나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죄는 단지 표면적인 증상이었고, 그 아래에는 더 깊은 영적인 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허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다른 곳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15)

고린도 교회는 오만하게도 자기들의 행동이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조차 사도들보다 자신들이 더 잘 안다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앞 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전서 4:19)

그 남자의 죄 자체도 위험했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교회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런 행동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로마서 1:32)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끔찍한 죄에 대해 슬퍼하지 않는 것에 대해 슬퍼했습니다. 우리는 죄가 만연하거나 용납될 때, 마땅히 애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파멸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죄에 대해 애통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성령과 함께 이 남자의 죄를 심판하는 데 동참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죄지은 형제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마무리하셨습니다: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20)

의로운 심판이 이뤄질 때, 성령은 그것을 확증하십니다. 바울은 이 남자의 행위가 악하다는 데 동의했고,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첫 번째 요점에서 말한 것처럼, 그를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이 어떻게 “그를 구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판단했습니다. 5절의 명령은 냉정하게 보일 수 있지만, 회복을 위한 조치입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전 5:5)

바울은 종종 사람을 ‘육’과 ‘영’으로 나누어 말했습니다. 육은 죄를 지향하는 옛 자아이고, 영은 순종을 향한 새로운 자아입니다. 이 남자는 자기 방식대로, 곧 육신을 따라 살면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드러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는 자들로 여겼지만, 이 남자와 교회는 신앙이 매우 미성숙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거부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교회는 건강하고 거룩한 제자를 세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새 생명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남자의 행동을 바로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죄, 즉,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4:17)

그 남자는 교회 공동체에서 끊어지고, 자신의 죄로 인한 슬픔을 체험함으로써, 자신의 타락한 상태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교회도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교회는 제자를 만드는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파괴적인 힘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사랑은 분리의 고통을 견디게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치유를 향해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 곧 죄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서로와의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깎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의 죄가 파괴되도록 해야, 서로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죄에 안주하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옛 자아의 부패가 우리의 관계 속으로 파고드는 곳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며, 우리 안의 죄를 죽여야 합니다. 죄를 그대로 방치하면 복음 자체가 타협되고, 결국 생명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요점 – 교회를 구원하라

고린도 교회는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병은 매우 공격적이었고, 즉각적이고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그 남자를 교회 밖으로 내보낸 것은 결국 그를 죄에서 구원받게 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위험에 처한 것은 그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전체가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요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다루어야 교회를 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익숙한 비유를 사용해 설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고전 5:6-8)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집에서 만든 피자입니다. 어릴 때 어머니께서 반죽을 만들어 수건을 덮어 놓고 잠시 두셨다가, 나중에 보면 반죽이 그릇 밖으로 부풀어 오른 걸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넣은 이스트 한 꼬집이 반죽 전체에 퍼져 맛있는 저녁 식사가 되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도 반죽을 만들어 자연 발효되도록 놓아두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반죽의 일부를 떼어 새로운 반죽에 넣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원조 사워도우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그러나 유월절은 그들에게 특별한 절 기였습니다. 첫 유월절 밤, 그들은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죽음에서 급히 구출되었습니다. 그날 밤 만든 빵은 부풀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 매년 유월절이 되면 그들은 집안의 모든 누룩을 제거했는데, 이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누룩이 죄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비유로 사용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작은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퍼지도록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죄를 묵인함으로써 오히려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죄를 제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입니다.

다. 이 본문 속의 예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 예수님은 죄라는 누룩과 그 권세를 제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정결케 되고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실제로 누룩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된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룩하다 선언되었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의 의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는, 다시 말해 우리 형제자매인 우리는,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가 필요함을 인정했기에 존재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로마서 2:4)

우리는 다뤄야 할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 그리고 반드시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죄를 고백하고 치유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의 죄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한 구석에 숨겨진 작은 누룩 하나를 품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관계를 해치며 예수님과의 동행을 부패시킵니다.

이 죄라는 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조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갈라디아서 6:1)

우리가 돕고자 하는 사람의 죄에 우리도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거나 죄에 대해 단호함을 잃은 교회나 교단은 쇠퇴하거나 무너지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감염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죄를 돕기 위해 완벽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은 죄에 빠진 형제자매를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보여주셨습니다.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15-17)

우리 월링던교회는 이 모델을 따릅니다. 여러분이 이 과정을 직접 볼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선 두 단계에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보다 더 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모두가 죄를 한 영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대화는 나오지 않지만 누군가가 바울에게 이 문제를 알렸고,

바울은 이 문제를 초기에 해결하기 위해 여러 서신을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는 그의 지혜를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해, 누군가가 우리를 바로잡으려 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의 악의에 맞서 진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히브리서 12:11)

권면을 주고받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로 대해야 합니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누군가가 사랑으로 다가와 나를 바로잡아 주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서로를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가 나누는 사랑 –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누군가의 죄를 지적하기 위해 먼저 “기도 제목을 공유한다”라는 명목으로 뒷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누군가가 나를 바로잡을 때 화를 내며 친구들에게 그 사람을 헐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권면을 주고받고, 이후 함께 점심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내 형제를 지켜야 할 사람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준 권면을 받아들여야 할 수도 있고, 처음 반응했던 방식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 죄에 빠진 형제자매에게 사랑으로 권면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누군가가 마음속에 떠오른다면, 그 마음을 오래 두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회개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요점 – 세상을 구하라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건강한 교회는 복음 전도와 제자훈련이라는 건강한 사명을 이루게 합니다. 오늘 아침의 세 번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구하기 위해 죄를 다루어야 합니다. 교회 안의 죄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증언할 수 있는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이전 지시를 오해하여, 부도덕한 비신자들과는 관계를 끊으면서, 부도덕한 신자들과는 오히려 교제를 지속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 반대였습니다. 명백한 죄를 회개하지 않는 신자들과는 거리를 두되, 비신자들과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사기를 치거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연히 마주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과 어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과의 자리에서 복음을 다시 경험하게 하기 위해 함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서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라고 경고합니다. 흔히 말하듯, 여러분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다섯 사람의 평균이라고 합니다. 당신에게 그 다섯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좋은 동반자입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더 명확히 설명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랴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너희가 판단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너희 중에서 그 악한 사람을 내쫓으라.”

이 마지막 구절은 신명기를 인용하며, 다른 신을 섬기는 자를 언급합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 17:7) 신명기에서는 이 벌이 파문이 아닌 사형이었습니다. 신명기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확하고 친밀하게 백성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주변 민족들에게 경외감을 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러한 명령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도덕을 가르치는 경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증언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의 명백한 죄를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 마무리 구절들은 마음의 결핍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못한 것을 선택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와 그분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그의 죄가 그를 결코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다시 예수님의 충만함과 공동체의 사랑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의 삶 속 죄로 인해, 세상 앞에서의 증인의 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우리 중 일부는 우리 안의 누룩이 자라도록 내버려두었고, 우리는 심각한 영적 개입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학생 두 명과 포르노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한 학생은 포르노를 보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학생은 너무 놀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모두가 보는데요.” 그는 누군가가 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포르노는 교회 안에 만연해 있습니다.

또는 연인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동거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커플은 임대료를 아끼기 위해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거는 성관계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서로에 대한 헌신과 순결의 경계를 흐리게 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함께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고, 선정적인 영화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프로그램이 점점 더 저속해진다고 한탄하면서도 TV를 끄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노에 차있고, 남을 헐뜯고, 원한을 품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산산조각 난 유리창처럼 되어버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섬긴다고 말하는 하나님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가 진실성을 잃으면, 복음은 명확성을 잃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누가 예수님을 원하겠습니까?

군인들이 위험 지역에서 작전할 때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전투에서 돌아온 그들은 특별한 날엔 여전히 제복을 입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제복은 없지만, 성령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인치심이 됩니다. 선교사 레슬리 뉴비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복음이 답이 되는 질문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가십시오.”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덜 죄인인 것은 아닙니다.

죄 많은 인류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팔을 벌리고 우리에게 달려오셨습니다.

죄 많은 인류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고문하고, 죽인 지 며칠 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셔서 누구든지 동일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시고, 매 순간 함께하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의 종말적 관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바람은 그 심판 아래에 떨어지는 사람이 적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9)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의 초대는 단지 죄를 직면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의해 형성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우리가 되라는 초대입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 형제자매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제자로서 우리는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죄를 직면하고, 우리 안에서 죄를 버리며, 그 죄를 극복해 갑니다. 가족으로서 우리는 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바로잡습니다. 사명을 가진 교회로서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거룩함과 겸손함, 그리고 소망을 세상에 제시합니다.

위험은 가까이에 있고 죄는 강하지만, 그리스도는 더 가까이 계시고 더 강하십니다. 여러분이 그분께 삶을 맡겼다면, 그분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죄를 이기도록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 또한 서로가 죄를 이기도록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단지 선포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의 거룩함과 사랑이 모든 이에게 보이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